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

(방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2
----------	------

제안일자 : 2019. 09. .
제안자 : 방세환 의원, 박현철 의원,
주임록 의원, 동희영 의원,
이은채 의원, 황소제 의원,
임일혁 의원, 이미영 의원,
박상영 의원, 현자섭 의원 (10인)

-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를 건의하고자 함.

3. 건 의 안 : ‘붙임’

1. 제안이유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대한 개선을 촉구건의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매칭사업 중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는 시급성이 없었음에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매칭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하달하였고,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함께 인근 지자체인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보다 과도한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음.
- 지방도 338호선(이배제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2012년 4월 경기도와 광주시가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중앙재정 투입자심사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4년 12월에 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 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등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 업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매칭사업 중 ‘청년배당’ 사업 등은 경기도와 자치단체 분담비율이 7:3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경기도의 분담비율 결정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도 338호선(이배재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도, 2012년 4월 경기도와 광주시가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중앙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4년 12월에 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지방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둘째, 지방도 338호선의 사업비 50%를 부담하겠다는 당초 경기도의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 분권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2019. 9. .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